

流配歌辭에 나타난 체험인식과 표현양상

이현주*

<차 례>

- 1. 서언
- 2. 유배체험의 인식
 - 2.1 관념적 체험
 - 2.2 현실적 체험
- 3. 유배체험의 표현양상
 - 3.1 허구적 표현
 - 3.2 사실적 표현
- 4. 맺음말

1. 서언

유배가사는 유배 또는 유배적 상황에서 비롯된 자신들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한 가사의 한 유형으로서 16세기 초반에 처음 나타나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약 400여 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유배가사의 작가 대부분은 사대부로 그 시대의 집권층이자 정쟁의 주역들이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여된 사대부로서의 이념은 현실권

* 동아인재대학

력과 함께 하고 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던 까닭에 항상 작가 자신 또는 소속 정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유배라는 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현실과 이념이 충돌하는 과정에서의 심각한 갈등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글은 10편의 유배가사를 대상으로 하여 작가가 유배라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형상화하고 있는 방식을 찾아보는데 목표를 둔다.¹⁾

작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대단히 관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유배라는 엄연한 현실이 허구적으로 형상화되고 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작품에서는 작가가 현상적으로 체험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가운데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허구적 표현, 후자를 사실적 표현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2. 유배체험의 인식

2.1 관념적 체험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현실 중심의 지상계와 관념적 인식에서 비롯된 천상계가 함께 설정되어 있는 유배가사로 <만분가>·<사미인곡>·<속미인곡>·<자도사>·<별사미인곡>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은 일찍부터 “미인곡류 유배가사”²⁾ 또는 “적강형 유배가사”³⁾로 분류되어 왔는

1) 유배가사로 설정된 작품은 연구물에 따라 최저 5편에서 많게는 18편까지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유배라는 역사적 사실이나 유배적 정황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 내용에 유배지 또는 유배적 상황과 관련된 작가의 의식이 형상화되어 있는 작품으로 한정한다.

데, 배경이 되는 천상계는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이며, 지상계는 고난과 갈등을 안겨주는 불합리한 세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천상과 지상의 공간은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대비를 이루며 작품이 전개되고 있다.⁴⁾ 다시 말해 입과의 관계가 순조로웠던 천상계는 과거의 상황이며, 지상세계의 생활은 현재라는 시간적 의미를 지니면서 작가의 심리적 갈등이 형상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본래 천상적 존재가 지상으로 쫓겨나는 것을 ‘謫降’이라고 말하는데, 문학에 나타나는 이러한 표현구조는 적강소설을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⁵⁾ 그런데 위에서 제시한 유배가사에도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로 작품의 서사에 천상계를 설정하여 작가가 처한 유배상황과 체험을 나타내고 있기에 적강(형)가사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이는 작가들의 관념적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하겠다.

나아가 유배되어 있는 작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화자를 작품의 서두에서는 신선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하 본사에서는 입과 이별한 여성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나와 임금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일방적인 반성과 연모의 정서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관념론적 세계인식의 실상을 개별 작품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만분가〉는 124행 274구로 구성되어 있는 최초의 유배가사이다.

天上 白玉京 十二樓 어디매오
 五色雲 김픈곳의 紫靑殿이 가려시니
 天門 九萬里를 꿈이라도 갈동말동
 츠라리 식어지여 億萬번 變化호여
 南山 늦즌봄의 杜鵑의 닉시되어
 梨花 가디우희 밤낮즐 못울거든
 三清洞裏의 점은한널 구름되어
 ㅈ람의 홀리나라 紫微宮의 느라올라
 玉皇 香案前의 咫尺의 나아안자
 胸中에 싸힌말슴 쓸커시 스로리라 <만분가>

‘구만리’나 떨어져 있는 천상의 옥황상제에게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서사이다. 이렇듯 작품의 시작부터 유배의 원인이나 과정 같은 실제적 상황은 드러내지 않은 채 오직 화자가 천상계를 떠나 지상계로 내려왔다는 사실만을 나타내주고 있다. 작중 화자를 실제의 작가로 볼 때 작가는 옥황으로 표현되는 임금에게 다시 돌아가 가슴속에 쌓인 말쑤를 모두 털어 놓고 싶다는 의지를 압축적으로 표명해 놓고 있는데, 이 작품의 창작 동기나 목적을 여기서 찾아도 될 듯 하다.

이처럼 작품의 서사에 설정된 상호 이질적인 두 개의 공간에서 천상의 세계는 과거요 지상의 세계는 현재라는 시간적 의미와 함께 신선이라는 시적 화자를 설정함으로써 유배라고 하는 실제 상황을 관념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분가〉에서 처음으로 보여준 이러한 인식태도는 〈사미인곡〉에서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사미인곡〉은 ‘이 몸이 태어날 때 입을 따라 태어났으니 평생의 소원은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이었지만 늙어서 입

2) 이가원, 『만분가연구』, 『동방학지』 6집, 1963.
 정익섭, 『미인가사고』, 『가사문학론고』, 전남대출판부, 1989.
 정옥희, 『가사문학의 미인곡류연구』, 『한국어문학연구』 10집, 이화여대, 1970
 3) 박춘우, 『유배가사연구』, 대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최규수, 『적강모티프 유배가사에 나타난 표현방식의 특성과 시적효과』, 『이화어문논집』 13집, 이화여대, 1994.
 4) 김신중, 『송강가사의 시공상 대비적 양상』, 『고시가연구』 2·3합집(한국고시가문학회, 1995), 68쪽.
 5) 성현경, 『적강소설연구』,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대구:영남대출판부, 1989), 166쪽.

과 이별하고 벌써 삼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 느낌이 너무도 많다고 하여 천상계라는 공간과 여성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몸 삼기실제 님을조차 삼기시니
훤생 緣分이며 하늘모를 일이런가
(중략)

엇그제 님을피서 廣寒殿의 올랐더니
그더디 엇디흐야 下界에 느러오니
울적의 비스머리 얼키연디 三年이라 <사미인곡>

화자는 본래 광한전에서 옥황을 모셨던 신선이었으나 하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도 적강한 신선은 곧 바로 여인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물론 작가의 생애와 시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몸’은 작가 정철이라는 것과 ‘임’은 선조대왕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속미인곡> 역시 천상계에서 내려 온 두 여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으로 일찍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작품이다.⁶⁾

- 6) 이 작품의 對話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다.
- ① 이병기, 송강가가의 연구, 『진단학보』 제6권, 진단학회, 1936
 - 1. 갑녀 2. 을녀 3. 갑녀
 - ② 김성배 외, 『주해 가사문학전집』, 서울: 집문당, 1961
 - 1. 갑녀-을녀를 만나 사정을 물음
 - 2. 을녀-자신의 사정을 말함
 - 3. 갑녀-위안의 말을 건넨
 - 4. 을녀-(가)임의 기거 염려 (나)임의 소식 (다)空闊에 따른 애달픔
 - 5. 갑녀-결사
 - ③ 이상보, 『가사문학의 연구』, 서울: 형설출판사, 1974
 - 1. 갑녀-서사
 - 2-4. 을녀-본사(가)임의 기거 (나)임의 소식 (다)독수공방

메가는 더각시 본듯도 훤더이고
天上 白玉京을 엇디흐야 離別호고
히다더 저믄날의 놀을보라 가시논고 <속미인곡>

위는 서사의 한 부분으로 ‘을녀께서는 어찌하여 천상 백옥경을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라고 천상세계를 떠나 온 이유를 묻는 갑녀의 말인데, 여기서 “메가는 더각시 본듯도 훤더이고”는 갑녀와 을녀 모두 지난날 같은 세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 작품 역시 여기에 천상계가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시’로 지칭되는 두 명의 여성 화자가 등장함으로써 앞의 작품들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속미인곡>은 앞의 <만분가>나 <사미인곡>과 흡사하게 천상계라는 가상의 공간과 신전에서 변용된 여성을 시적 화자로 설정함으로써 실제의 상황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관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도사>는 조우인이 筆禍로 인해 옥고를 치루면서 지은 작품인데, 여기에도 천상계와 여성 화자가 설정되어 있어 위의 작품들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임향한 一片丹心 하늘피터 나시니

- 5. 갑녀-결사
- ④ 정재호, 『한국가사문학론』, 서울: 집문당, 1982.
 - 1. 갑녀-메가난 더각시~놀을보라 가시난고
 - 2. 을녀-어와 네어이고~조물의 타시로다
 - 3. 갑녀-글란 생각마오 매친일이 이셔이다
 - 4. 을녀-님을 피셔이셔~번드시 비취리라
 - 5. 갑녀-각시님 달이야 카니와 구진비나 되쇼셔

三生 結緣이오 지은마음 안녀이다
芳年 十五의 비혼일 전혀 업셔
(중략)

因緣이 업지 안여 하늘이 아라신가
一隻 靑鸞으로 廣漢宮 나라올나
듯고 못되던 님 천노치 잠간피니
니님이 잇뿐이라 반갑기를 가을홀가
(중략)

欄干 紅淚를 翠袖로 베스스며
玉京을 여회옴고 下界에 내려오니
人生 薄命이 이디도록 삼길시고
空閨 十年에 隻影을 버들삼고
(중략)

玉上 靑蠅이 온갖 허물 지어내니
내몸에 싸힌죄는 그지 7이 업거니와
天日이 在上하니 님이 짐작 아니실가
글란 더디고 설운뜰 닐오려니
百年 人生에 이너님 만나보아
誓海 盟上을 첫 말슴 미뎃더니
그더되 므스일로 이근원 그쳐두고
옥7튼 얼구를 외오두고 그리논고
(중략)

銀針을 싸야내야 五色실 뉘여노코
님의 짜딘 오솔 깊고져 흥건마는
天門 九重에 갈길이 아득하니
兒女 深情을 님이 언제 슬피실고 <자도사>

“玉京을 여회옴고 下界에 내려오니”라고 하여 천상에서 하강했다는 것과 “芳年 十五의 비혼일 전혀 업셔”, “空閨 十年에 隻影을 버들삼고”, “銀을針을 싸야내야 五色실 뉘여노코/ 님의 짜딘 오솔 깊고져 흥건마는” 등의 구절을 통해 여성의 애절한 모습을 느낄 수 있어 <자도사> 역시

앞에서 본 작품들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김춘택의 <별사미인곡>도 화자는 광한전 백옥경에서 임과 이별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것과 두 여인의 대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보소 저 각시님 설운말슴 그만호오
말슴을 드러하니 설운줄 다 모를쇠
因緣인들 혼 가지며 離別인들 갓탈손가
廣寒殿 白玉京의 님을피서 즐기더니
撒嬌(니리)를 흥엿거니 災殃인들 업술손가
히 다 저문날의 가는 줄 설위마소 <별사미인곡>

본래 천상에서 생활했던 한 여인이 뜻밖의 재앙을 만나 임과 이별하게 되었지만, 이를 너무 서러워하지 말라고 또 다른 여인이 전하는 위로의 말이다. 이 작품 역시 천상과 여성 화자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작품들과 비슷한 표현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특히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서 영향을 받아 지어졌기 때문일 것이다.⁷⁾ 여기서도 역시 작가의 위치를 개입시킬 때 화자는 작가 자신임은 물론이다.

이상에서 <만분가>를 비롯해 <사미인곡>·<속미인곡>·<자도사>·<별사미인곡>에 대해 작가의 세계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들 작품에서는 임과 이별한 다음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함에 있어 한결같이 서사에 천상계라는 가상의 공간과 적강한 신선을 설정하였고, 본사에서는 임과 이별한 세속의 여인을 화자로 등장시켜 유배 상황을 대단히 관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지어진 <만분가>에서 시작된 이러한 표현 방식은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 이르

7) 김춘택, 『북헌집』 권4 <論詩文>, “余來濟州 又以謔作別思美人曲 追和松江詞”.

러서는 더욱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세계인식은 <자도사>를 거쳐 <별사미인곡>에 이르기까지 시간상으로 약 200년간 지속되면서 미인곡계 유배가사라는 하나의 계보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2.2 현실적 체험

유배가사 가운데는 천상계라는 가상의 공간이나 여성 화자와 같은 관념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고 유배라는 상황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작품들은 “나”로 표현되는 작가의 입장에서 공간의 이동 및 시간적 순서에 의해 자신이 보고 들은 이야기와 함께 감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북관곡>·<속사미인곡>·<만언사>·<북천가>·<채환재적가> 등 조선 중기 이후에 지어진 작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작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관곡>은 작품의 대부분이 실제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조정에 득실거리는 간신배들의 참언에 의해 왕의 판단이 흐려져 정치가 문란하게 되고 마침내 작가의 조부인 송시열이 북방으로 유배되는 과정과 그곳에서의 생활상 등이 서술되어 있는 작품이다.

어와 설운지고 이 行次 무사일고
 長沙 天一涯에 賈太傅 行色인가
 潮州 八千里에 韓吏部 길이런가
 北關 千里밖에 어대라고 가시는고
 평생을 도라보나 지은죄 없건마는
 늦게야 어쩔일로 이런 禍 만나시고 <북관곡>

이는 지은 죄가 없다는 것을 강변하면서 오로지 반대파의 모함을 받고 천리 밖 북관으로 유배된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북관곡>의 서사이다.

<북관곡>은 배행자의 작품이라는 특성을 지니면서, 역사적 사실과 유배자 및 작가가 실제로 체험한 일들을 유배 경위-행로-생활 등을 시간적 순서에 의해 서술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임금에 대한 충념이 기초를 이루는 가운데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과 나라를 염려하는 우국 의식 등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속사미인곡>은 작가 이진유가 영조대왕 원년에 중국 사행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나주에 유배하라는 엄명을 받았다가 다시 추자도로 이배되는 과정 및 3년 동안 추자도에서의 유배 생활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인데, 특히 기행체의 수법을 취하고 있음과⁸⁾ 많은 부분이 어려운 한자 어휘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三年을 넘을 떠나 海島에 流落하니
 내 언제 無心하여 님의게 得罪한가
 님이 언제 薄情하여 날 待接 疎히훈가
 내 얼굴 곱뎠던지 嫉妬홀산 衆女로다
 幽閑한 이 내몸을 善淫한다 니르노죄 <속사미인곡>

추자도라는 섬에서 3년 째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오직 노론을 상징하는 ‘衆女’의 질투와 시기 때문이라고 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동시에 유배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작품의 서사이다.

<속사미인곡>은 유배의 원인으로부터 가족과의 이별 장면, 유배지로

8) 서원섭, 『속사미인곡 연구』, 앞의 책, 228쪽.

향하는 노정, 유배지의 험난한 환경 및 생활상에 이르기까지 작가가 실제로 경험한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시간적 순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기행가사의 면모를 찾을 수 있다.

〈만언사〉는 정조(1776~1800) 때 대전의 별감으로 있던 안조원(1765~?)이 직무상의 부정을 저지르고 추자도에 유배되어 그곳의 풍속 및 생활상 등에 대해 장편으로 서술한 작품이다. 작가와 관련해서는 정통 사대부가 아닌 중인 계층이라는 사실과 유배의 동기는 당쟁과는 무관하게 오직 직무상의 개인적 비리 때문이었다는 점은 이 작품만의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의 외형상 1,000구가 넘는 가장 장편의 유배가사라는 점도 특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김진형의 〈북천가〉 역시 유배의 동기에서부터 유배지의 행로 및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물론 해배의 명을 받고 돌아오는 길과 귀향 이후의 상황까지를 서술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대부분의 유배가사가 해배를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비해 이 작품은 해배된 이후 귀향의 과정은 물론 고향에서의 이야기까지를 담고 있어 기행가사로서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 작품이다.

世上에 슝드라 이느말슴 드러보쇼

科擧를 흐거들낭 靑春에 안이호고

(중략)

슝마다 똥케되면 우름이 나련마는

君恩을 갑흐리라 快喜도 快喜시고 <북천가>

이는 작품의 서사로서 자신의 유배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유배의 명을 흔쾌히 받들겠다고 하여 당당하고 호방한 유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行裝을 다시 츠려 故鄕으로 가을적에

(중략)

江湖에 便케누어 太平에 놀게되면

무삼 恨이 또잇스며 求喜일이 업스리라

글지어 記錄호니 婦女들 보신 後에

後世에 男子되야 男子들 부러말고

이늬노릇 호기되면 그 안이 爽快홀가 <북천가>

여기는 작품의 결사로서 귀향의 노정과 귀향 후의 일이 묘사되어 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 온 가족이 자신의 무사귀환을 기뻐하였다는 것과 늙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男子의 千古事業’ 다하고 왔으니 이제는 강호에 묻혀 태평연월을 구가하고 싶다는 작가의 소원이 피력되어 있다.

이처럼 〈북천가〉는 유배의 경위에서부터 귀향까지 자신이 체험했던 여러 가지 사실을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 대단히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유배 동기→유배지의 경로→유배지의 생활상→유배지에서 돌아오는 길→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실제 체험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행가사의 구성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만언사〉와는 달리 유배지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과 귀향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유배 생활의 종결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결말이 단려진 구성 방식을 보이고 있다.⁹⁾

〈채환재적가〉는 작품의 제목을 통해 蔡氏 姓을 가진 선비가 같은 장소에 재차 유배되어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내용을 통해서도 임금에게 상소를 올린 것과 高爽鉉이라는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 신지도라는 섬에 유배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9) 柳海春, 앞의 책, 39쪽.

어화 親舊네야 八字打令 드러보소
 解配한지 두 달만의 두 번 구양 무삼일고
 니의 罪狀 생각하면 만번죽어 쓰것만는
 聖上이 好生호스 特待一縷 再罪之命
 惶恐感祝 씨의스겨 南山九如 晝夜祝手
 (중략)

妖妄怪鬼 高爽鉉이 金枝玉葉 즈부라고
 도록 出沒 바즈니며 百端凶計 因人成事
 (중략)

狂妄한 니의罪案 自反不測 호엿스니
 罪歸薄福 이라하면 罪中添罪 아니될가
 水陸不遑 호든 苦生 大綱이나 알외리라 <채환재적가>

작품의 序詞로서 해배된 지 두 달 만에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가 다시 신지도에 유배가게 되었다는 경위를 서술한 것이다. 자신의 이같은 행동은 죽어 마땅하지만 好生하신 임금의 특별한 배려로 유배에 그쳤으니 그 은혜를 뼈에 새기겠다면서 그저 황공 감축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고석현의 흉계가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 그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유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3. 유배체험의 표현 양상

3.1 허구적 표현

유배라는 상황을 대단히 관념적으로 수용한 작품으로 <만분가>·<사미인곡>·<속미인곡>·<자도사>·<별사미인곡>을 분류하였는데, 이들

작품에서는 유배상황에서 생성되는 감정을 표출함에 있어서도 적강모티프나 여성화자와 같은 다분히 비현실적 소재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실례로 <만분가> 서사에서 “天上 白玉京 十二樓 어디매오/ 五色雲 깃픈곳의 紫靑殿이 가려시니/ 天門 九萬里를 꿈이라도 갈동말동”은 화자가 과거 옥황과 함께 지냈던 천상계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하강한 신선이라는 사실을 밝혀놓은 구절이다. 즉, ‘천상 백옥경 십이루는 어디인가’라는 자조적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은 본래 천상계에서 옥황을 보필했던 존재였으나 지상계로 오게 되었음을 한탄한 내용이다.

이어지는 “츨라리 식여지여 億萬번 變化호여”부터 “胸中에 싸힌말슴 쓸켜시 스로리라”까지는 옥황과 이별한 이후 지금의 상황에 대한 묘사이다. 차라리 죽어서 억만 번 변화하여 ‘두견의 녀’가 되거나 삼청동 속의 한 점 ‘구름’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옥황에게로 다시 돌아가 자신의 속내를 모두 털어놓고 싶다 하여 적강에 따른 심적 갈등과 함께 강력한 회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곧 천상계로의 복귀의지는 곧 현재 지상계의 생활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도 읽어낼 수 있다.

한편, 본사에서는 하강한 신선에서 임과 이별한 여인으로 변용된 화자의 모습과 실제의 작가 모습이 교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① 五色실 니음절너 님의웃슬 못호야도
 바다그튼 님의恩을 秋毫나 갑프리라
- ② 白玉그튼 이내맛음 님위호여 직회더니
 長安 어제밤의 무서리 섯거치니
 (하략)
- ③ 梧桐 점은비의 외기력이 우리넬제
 關山 萬里길이 눈의암암 불피는듯
- ④ 靑蓮詩 고쳐읽고 팔도한을 슯쳐보니

華山の 우는새야 離別도 괴로왜라
 望夫山前의 夕陽이 거의로다
 기도로고 바라다가 眼力의 盡뒸던가
 落花 말이업고 碧窓이 어두으니
 입노른 샷기새들 어이도 그리건자
 八月秋風의 썩집을 거두오니
 뽕긴의 썩인 알히 水火를 못면토다
 生離死別을 혼몸의 혼자만나
 三千丈 白髮이 一夜의 기도길샤
 風波에 헌비타고 흠피노던 저뉴덜야
 江天 지논희의 舟楫이나 無恙혼가
 (하략)

⑤ 恨이 撇희되고 눈물로 가디삼아
 님의집 창밖기 외나모 梅花되어
 雪中의 혼자피여 枕邊의 이위논듯
 어엿븐 이얼골을 네로다 반기실가 <만분가>

①·③·⑤에는 서사에서 설정된 신선이 임과 이별한 세속의 여인으로 변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색실로 임의 옷을 짓는다거나 날아가는 외기러기를 보고는 임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데서 평범한 여성의 이미지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죽은 후 설중의 '매화'가 되어 임의 침실에 다시 피어나겠다고 한 데서는 단지 여성의 이미지를 넘어 비장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의 유배 생활에서 생성되는 작가의 감정이나 갈등이 비현실적으로 형상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파' '풍랑' '물' '불' 등과 같은 어휘는 여성에게는 다소 부당스러운 소재들로서 갈등의 고조 내지는 고단한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의 “長安 어제밤의 무서리 섯거치니”, 와 ④의 “風波에 헌비타고 흠피노던 저뉴덜야”의 구절에서 작가와 시대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무서리’

는 무오사화를 ‘함께놀던 저 뉴덜’은 작가를 포함한 당대의 사림파로 보면 이는 실제 상황에 대한 형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만분가>가 보여준 체험의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천상 백옥경 십이루가 어디인가? 오색운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려 있으니 꿈에서나마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여 작품 시작 부분에 천상적인 용어¹⁰⁾(옥황, 삼청동, 자미궁, 광한전, 백옥당 등)가 자주 나타났다. 본사에서는 임과 이별한 여성의 모습(오색실, 울음, 꽃-매화, 눈물 등)과 “長安 어제밤의 무서리 섯거치니”, “無端흔 羊角風이 宦海中의 나리나니”, “風波에 헌비타고 흠피노던 저뉴덜야”, “君恩이 물이되어 흘러가도 자취업고” 등과 같이 작가가 현실적으로 경험한 요소들이 섞여 나타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결사에서 다시 이 모든 것은 옥상황제의 처분이라고 함으로써 유배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시적 화자의 성격 및 위상에 있어서는 도입부에서 설정한 인식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인식과 형상화 방식은 유교이념으로 무장된 사대부층의 남성작가가 자신이 처한 유배상황과 여기서 생성되는 감정이나 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문학적 기교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본 고에서는 이러한 표현구조를 천상계 및 여성화자의 설정에 따른 체험의 허구적 표현으로 이르고자 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사미인곡>에서는 한층 세련된 모습을 보여준다.

10) 白玉京: 道教에서 말하는 玉皇上帝가 거처하는 곳.

廣寒殿: 달속에 있다는 宮殿.

紫靑殿: 神仙이 거처한다 곳.

三清洞: 神仙이 거처한다는 마을로 道家에서는 玉淸 上淸 太淸을 이름.

紫微宮: 天帝의 거처.

이 밖에도 유배가사에는 金花城, 白玉堂, 太上, 玉眞君子, 乾德宮 등의 도교적 용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미인곡〉의 본사에는 입과 이별한 여인의 그리움이 애절하게 토로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화자의 위상은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세속적 여인으로서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화자는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입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춘·하·추·동 각 계절마다 특정 자연물의 이미지를 통하여 입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는데서 더욱 선명한 여성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 역시 지상계로부터 천상 세계로의 공간적 이동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존재로 여성 화자가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만분가〉와 비슷한 표현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더 梅花 것거내여 님겨신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春詞)

鴛鴦錦 버혀노코 五色線 플터내여
 금자희 견화이서 님의옷 지어내니 (夏詞)

淸光을 쥐어내여 鳳凰樓의 붓티고져
 樓우희 거러두고 八荒의 다비최여
 深山窮谷 점 낮ㄴ티 밍그쇼셔 (秋詞)

陽春을 부쳐내여 님겨신디 쏘이고져
 茅簷 비취히를 玉樓의 올리고져 (冬詞) 〈사미인곡〉

춘사에서는 ‘매화’를 통해 입에 대한 여성의 절조를, 하사에서는 鴛鴦錦 오색실로 입의 옷을 지어 보내고자 하는 여성의 세심한 정성을 나타냈다. 추사에서는 밝은 달빛으로써 온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 입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시켜 보려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동사에서도 추운 겨울날 따뜻한 봄 햇살을 입에게 전하고자 하는 여인의 지극한 마음

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입과 이별한 여인은 입의 수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때를 가리지 않고 오직 입에 대한 그리움만을 전하는 애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사미인곡〉의 결사이다.

흐르도 열두째 흔들도 설흔날
 저근덧 심각마라 이시름 닛자흐니
 ㅁ음의 미쳐이서 骨髓의 께터시니
 扁鵲이 열허오나 이병을 엇디허리
 어와 내병이야 이님의 타시로다

(중략)

님이야 날인줄 모르셔도 내님조츨려 흐노라 〈사미인곡〉

입에 대한 그리움의 고조는 마침내 불치의 병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을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입에 대해 어떤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 범나비가 되어서라도 입을 따르겠다는 비장한 의지로 마무리하고 있다.

두 여인의 대화체 가사인 〈속미인곡〉 역시 유배상황에 대한 허구적 표현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어와 네여이고 내스설 드러보오

(중략)

하늘허라 원망흐며 사롭이라 허물허라
 설워 플터헤니 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심각마오 미친일이 이셔이다 〈속미인곡〉

위는 본사의 시작 부분으로서 갑녀의 물음에 대한 을녀의 대답이다. 백옥경을 떠나 온 것은 자신의 행동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이지만 이것

은 모두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여인 또한 작가의 위치를 개입시킬 때 작가 자신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실 정처에서 패배하여 물러나 있는 작가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두 명의 여성 화자를 내세워 군왕에 대한 연모의 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어지는 “글란 생각마오 미친일이 이셔이다”는 을녀를 위로하는 갑녀의 사설이다.

님을 피서이서 님의일을 내알거니
물궂튼 얼굴이 편혹실적 몇날일고 <속미인곡>

자나깨나 입을 그리워하는 을녀의 모습인데 이를 통해 이 작품의 중심 화자가 을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리움에 지쳐 잠깐 잠이 들어 꿈에서 겨우 입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닭의 울음소리에 그만 잠에서 깨고 말았다.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니니
저근덧 力盡호야 풋줄을 잠간드니
情誠이 지극호야 꿈의 님을보니
玉궂튼 얼굴이 ㅅ이나마 늘거세라
ㅁ옴의 머근말슴 슬크장 숲자호니
눈물이 바라나니 말인들 어이호며
情을 못다호여 목이조차 메여
오던된 鷄聲의 좁은 엇디 씨뚫던고
어와 虛事로다 이님이 어더간고
결의 니러안자 窓을 열고 브라보니
어엿븐 그림제 날조출 썬이로다
각시님 돌이야 크니와 구즌비나 되쇼셔 <속미인곡>

임과의 재회는 현실이 아닌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꿈의 세계는 지극히 단조롭고 주관적이어서 화자의 행위도 기껏해야 “ㅁ옴의 머근말슴 슬크장 숲자호니”라고 하였지만 흐르는 눈물과 목이 메여 실제로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대단히 연약하고 소심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갑녀는 “각시님 돌이야 크니와 구즌비나 되쇼셔”는 ‘달은 그만 두고 차라리 구즌비나 되십시오’라고 을녀에게 권유하는 것으로서 결말을 이루고 있다.

사실 정철의 이 두 작품은 그의 생애나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연군 문학의 전형으로서 사대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남녀간의 연가로서도 많이 가창되었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¹¹⁾

화자의 성격상 <만분가>나 <사미인곡>에 나타나는 화자는 비교적 차분하고 조용한 모습의 여성이라면, <속미인곡>의 여성은 보다 서민적이고 소박한 이미지를 보이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¹²⁾

조우인의 <자도사> 역시 천상계와 여성 화자가 나타나는 등 위의 작품들과 비슷한 표현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별사미인곡>은 <속미인곡>의 아류작이라고 할 만큼 등장하는 화자나 전개방식이 비슷하다.

특히 본사는 “한률괴 맹세호여 님 섬기라 원이러니/ 造物 猜忌호가 鬼神이 희즈온가/ 내 八字 그만호니 사름을 怨望홀가”라고 하여 화자는 평생토록 임과 함께 지내고자 하였으나 조물과 귀신의 방해로 인하여

11) 최상은, 『유배가사의 작품구조와 현실인식』, 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3, 21~28쪽.

12) 김진영, 『사미인곡의 작품세계』, 『한국고전시가 작품론』 2(서울:집문당, 1982), 652쪽.

천상의 세계를 떠나게 되었다면서 이별의 원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음에서 화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님 계신디 생각하니 꿈인들 어이갈고
人間 千山의 버리고 나라거니
(중략)

누어도 생각이오 안즈도 생각이라
아무도 이 생각은 一刻을 못이즐죄 <별사미인곡>

오매불망 임의 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여성의 안타까운 모습에 다름 아니다.

결사에서는 죽어서 ‘구름’ ‘바람’ ‘일륜명월’ ‘명산대천’ ‘천심노목’ ‘정지초’ ‘금옥명주’ ‘오현금’ ‘화류마’ ‘새짐승’ ‘티끌’ 등으로라도 변신하여 반드시 임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화자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즉,

차흔리 식여져 구름이느 되여이서
祥光 五色이 님계신디 덩헛고져
그도 ㅁ소하면 바람이느 되야이서
夏日 淸풍의 님 겨신디 부러고져
그도 ㅁ소하면 一輪明月 되여니서
(중략)

그도 ㅁ소하면 씨끝이나 되여니서
님드니는 길 우회 느붓기며 다니고져 <별사미인곡>

와 같이 화자 자신이 어리석어서인지 아니면 미쳐서인지 모르겠다며 오직 임에 대한 그리움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어서

어와 이 각시님 그려도 그려흔다
八字를 어이하며 天倫인들 逃亡홀가
더헛거니 덜헛거니 分別하여 무어스 헛며
각시님 蠶 가득 부으시고 혼시름 이즈소서 <별사미인곡>

라고 하여 이 모든 갈등과 고난을 한 잔의 술로 잊어 보자는 체념적 권유로 끝을 맺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만분가>를 비롯해 <사미인곡>·<속미인곡>·<자도사>·<별사미인곡>에서 나타난 유배 체험의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들 작품은 유배라는 극한 상황을 임과 이별한 여인의 입장에서 현실적 원망이나 고통은 감춘 채 오직 과거에 대한 회상과 임에 대한 일방적 그리움만을 표출하고 있는바 이를 두고 관념적 세계인식에서 비롯된 허구적 표현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3.2 사실적 표현

유배가사 가운데는 유배라는 상황에서 체험한 여러 가지의 사실들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작품은 “나”라는 작가의 입장에서 유배의 출발→노정→도착 및 생활 등에 대해 대단히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북관곡>·<속사미인곡>·<만언사>·<북천가>·<채환재적가> 등 주로 조선 중기 또는 후기에 지어진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관곡>은 대체로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있다. 조정 간신배들의 참언으로 할아버지 송시열이 함경도로 유배되는 과정 및 현지의 모습 등이 솔직하게 그려진 작품이다.

戊巳年間事를 생각거든 목이멘다
슬플사 孝宗大王 큰 뜻을 품으시고
(중략)

暮年服 衆子說이 네대로 하였더니
海尹 凶疏 後에 사설이 橫流하야
卑主 二宗說과 國本이 미정상소
(중략)

仁宣后 服制 일이 마초아 날 제이고
讒言이 罔極하야 온갖 길로 나아가니
大聖人 聰明인들 疑惑이 업사실가
(중략)

凶人の 上疏로 嚆矢를 삼아두고
晝夜에 마련하야 一時에 니러나니
한 사람 잡난 말이 罪目도 하도 할사
(중략)

아마도 主上殿下 先入을 主하시니
孤臣의 冤抑한 일 寃라서 暴白할고 <북관곡>

송시열은 효종 9년 무술년(1658)부터는 찬선 및 이조판서 등에 임명되었으며, 효종과 단독으로 북벌 계획을 수립할 만큼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효종의 굳은 의지에 감동한 송시열은 <上寧陵文>¹³⁾을 올리면서 적극적으로 정사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효종이 승하(1659)하자 仁宣王后 服制 문제를 놓고 남인측과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송시열이 주장한 기년설로 결정되었다. 다음 왕인 현종도 그를 매우 신임하였는데, 좌참찬으로서 효종의 陵誌를 짓기도 했다. 이 무렵 다시 북제 문제와 효종의 장지와 관련한 시비가 일자 송시열은 낙향하였는데, 위의 인용부는 윤선도 등 남인측의 계속된 상소로 인해 결국 덕원에 유배당

13) 효종 10년(1659) 己亥 三月十一日에 올린 王의 密札에 대한 答狀.

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유배에 처해진 데 대해 “寃라서 暴白할고”라고 하여 조부의 억울함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또한 “한 사람 잡난 말이 罪目도 하도 할사”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송시열을 비난했던 간신들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두어 달 客旅中에 歲律이 고쳐세라
決斷 언제 날고 待罪도 지루하다
(중략)

마참내 遠竄啓辭 所懷에 드러시니
金吾郎 先文이 금함도 금할시고
傳旨를 들란 후에 蒼黃이 길을 나니
(중략)

長安 咫尺을 곁으로 지난말이
浮雲이 壅鬱하야 天日을 가려시니
(중략)

新安驛 점심 후에 淮陽을 드러오니
갓득이 冷落한대 雨雪은 무삼일고
主人이 眷黨이라 待接이 極盡하다 <북관곡>

송시열은 고향에서 대죄하고 있던 중 덕원 유배라는 왕의 명명을 받은 즉시 혈육들과 이별하고 유배지로 출발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배에 임하는 자세 및 군신간의 질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추운 겨울에 의금부 관리의 호송을 받으며 장안을 지척에서 지날 때 애절한 눈물을 흘렸다는 등 배소에 이르기까지의 감회와 노정을 소상하게 드러냄으로써 사실감을 더해준다.

니튼날 朝飯 후에 鐵嶺을 올라가니
嚴風이 차도 찰샤 北道도 여기로다
(중략)

時節을 헤아리고 故園을 생각하니
華陽洞 심근 매화 몇가지 버러시며
(중략)
窸지게 주어 닳고 적막히 안자시니
집 念慮 나라 근심 험가렴도 하고 만타
(중략)

네부터 賢人君子 뉘 아니 굿것실고
東漢적 黨錮禍와 宋朝에 僞學禁을
前史에 지내보고 憤慨히 녀이던 일
내 집에 친히 볼 줄 내 었디 아라실고 <북관곡>

위는 유배지에서의 생활상을 서술하고 있는 대목이다. 때는 봄을 맞이하였지만 덕원에는 여전히 설한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래서 창문을 닫고 적막하게 앉아 있으니 이번에는 고향 생각과 나라에 대한 근심을 억누를 수 없다고 하였다. 눈보라와 극심한 추위에 시달려야 하는 유배지에서 가족과 고향을 생각한 데 이어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염려하는 유배자의 충성스러운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임금만을 그리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염려하는 ‘우국 의식’¹⁴⁾은 다른 유배가사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경우라고 하겠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면서 후한 때의 ‘黨錮禍’¹⁵⁾나 宋朝의 ‘僞學禁’의 고사를 상기시키면서 억울하게 유배된 데 대한 슬픔과 유배지의 험난한 생활상과 불규칙한 기후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14) 김주곤, 유배가사에 나타난 충절의식 양상, 『영남어문학』 16(영남어문학회, 1989), 362쪽.

15) 後漢 靈帝 때 范滂, 李膺, 郭泰 등 학식과 명망이 높은 백여 명을 黨人으로 규정하고 禁錮에 처한 일.

아마도 설운 뜻이 가지록 가이업다
어나 제 조흔 바람 이운 풀 부러내야
楚澤을 離別하고 故國에 도라가서
겨렛것 모다 안자 이 辭說 니르러니 <북관곡>

이 대목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루 속히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앉아 고생 많던 유배 생활의 온갖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작품의 결사이다.

<속사미인곡>은 작가가 중국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 도중 유배의 명을 받고 처음 나주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추자도로 옮겨가는 과정 및 현지에서 3년간의 비참한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가) 西河의 拭玉호고 使者車로 도라오니
鳳凰城 다드르며 故國消息 驚心호다
(중략)
近畿押送은 古今의 初見이오
子姪除職은 異恩도 稠疊호다
薄命호 이 내 몸의 님의 恩惠 이러호니
旅館殘燈의 피눈물이 질로 난다

나) 金吾吏 金澤龜를 碧蹄驛의 만나보고
先山의 잠간드러 痛哭호여 拜別호고
(중략)
湖南길 더위잡아 蘆嶺의 올라쉬여
북으로 도라보고 두세 번 歎息하니
浮雲이 蔽日호야 京國을 못볼노다 <속사미인곡>

가)는 중국 사신을 마치고 귀국하는 도중 작가에게 나주로의 유배 명령이 내려져 한양 근처에서 호송당하는 장면이며, 나)는 의금부 관리의

호송을 받으며 선산과 가묘에 배별하고 길을 떠나 노령에 이르러서 궁궐이 위치한 북쪽을 향해 재배하고 유배지로 향하기까지의 서술로 모두 이별의 장면들이다.

東方이 既白하되 소리하고 落帆하야
石磯의 비를 먹고 島中의 드러가니
村落이 蕭條하야 數十戶 漁家로다
風雨를 무릅쓰고 蝸室을 츠즈드니
(중략)

晝夜의 들니느니 海島와 猛風이오
朝暮의 섯두느니 瘴霧와 蠻雨로다
棲息을 未定하여 兩姪을 離別홀시
丈夫의 一村肝腸 兩行淚를 禁소나
濫關의 別孫하던 韓吏夫의 情景이오
越江의 送弟하던 柳子厚의 懷抱로다
押送官 拜別하야 님계신 대 도라가니
耿耿하 一丹心이 다시금 새로워라 <속사미인곡>

추자도에 도착하여 풍우를 맞아가면서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달팽이 껍질’이라고 표현할 만큼 비좁은 방이었다. 이어서 끼니를 흰죽으로 연명해야 하는 가난한 섬 생활과 주야로 들리는 것은 파도와 강풍소리 뿐이라고 하여 유배지의 열악한 생활 환경에 대해 서술하였고, 여기까지 동행했던 두 조카와 이별하면서는 韓愈가 귀양가다 손자와 이별한 것과 柳宗元이 유배갈 때 越江에서 동생들과 이별했다는 고사를 상기하고, 압송관과 이별한 뒤에 연군의 정이 더욱 새로워진다고 하였다.

中夜의 잠이 업서 擁衾하고 니러안자
身世를 自歎하고 平生을 撫念하니
孤露하 이 내 몸이 子姓도 업슨내오

瘴海의 病이 든들 救護하리 뉘 이시며
盤鷄에 넷 蔽慮를 뷔여신들 뉘 덕힐고
賜書 千券을 高閣의 못 거시니
蠹書虫 다 먹은들 기 뉘라서 曝洒하며
平泉庄 滿圓花를 剪伐하든 뉘 禁홀고
天下의 無辜하니 나뉘기 또 이실가

(중략)

漁村 遠溪聲이 긴증을 씨드르니
우리 님 玉音은 耳邊의 宛然하고
우리 님 御爐香이 衣袖의 품여계라
어느날 이 내 꿈을 진즌것 삼을손가
王庶幾改之를 餘日望之 하노라 <속사미인곡>

이 구절에 작가의 신세에 대한 슬픔과 한탄이 드러나 있다. 곧 후손도 없는 몸이 절도에 유배되어 있으니 병이 든들 누가 보살펴 줄 것이며, 비어 있는 집의 서책과 정원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데 대한 걱정을 하면서 아무 죄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천하에 자기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금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겨우 잠에 들어 꿈속에서 그리던 입을 만났지만 이내 깨고 말았다는 것이다. 꿈에서 입을 만난 것처럼 어서 왕의 은전이 내려져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고대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만언사> 역시 유배지에서의 궁핍하고 처참한 생활을 서술한 유배가사 가운데 가장 장편의 작품인데, 여기에는 작가가 경험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되고 있으며, 작품에 나타나는 현실적 체험은 크게 유배되기 이전의 것과 유배지에서의 체험으로 대별된다.

먼저 유배되기 이전의 체험에 대해서는

어와 벗님네야 이 내 말삼 들어보소
 人生 天地間에 그 아니 느껴온가
 (중략)

아모리 내 일이나 내 亦是 내 몰래라
 長吁短歎 절로 나니 島中傷感 뿐이로다
 父母生我 하오실 제 죽은 나를 나오시니
 (중략)

十一歲에 慈母喪에 呼哭哀痛 昏絶하니
 그 때나 죽었더면 이 때 고생 아니 보리
 (중략)

十年養育 外家恩功 好衣好食 그러스라
 (중략)

옛 마음 다시 나서 하던 공부 고쳐하여
 (중략)

御樂院에 들어가서 金門玉階 門을 열어
 (중략)

削官退去 하온 後에 七日獄中 지내오니
 (중략)

手鎖足鎖 하온 後에 司獄 中에 드단 말가
 (중략)

一命을 꾸이오서 海島에 보내시니
 어와 聖恩이야 가지록 罔極하다 <만언사>

라고 하여 30대의 젊은 나이에 절해고도로 유배된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자탄하면서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회고하였다.

즉, 거의 죽은 상태로 태어나 며칠 후 소생하였으나 11세에 생모와 사별하고 외가에서 자랐다. 그 후 계모를 맞이하면서 『東史古文』과 『四書三經』 등의 경전을 숙독하면서부터는 일시적이거나 才童이라는 칭찬도 들었다고 하였다. 20세 전후에 결혼을 하고서 한때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나, 곧 마음을 고쳐 잡아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마침내 궁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때부터 호사스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小心奉公을 잘못하여 칠 일간 투옥되었으나 성을 입고 다시 복직되었지만, 또 다시 대왕의 도장을 도용하는 죄를 저지르고 절해고도에 유배되는 현재까지를 회상하고 있다.

島中으로 들어가니 寂寞하기 太甚하다
 西面으로 돌아보니 날 알 리 뉘 있으라
 (중략)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 어려웨라
 衣服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난다 (夏)
 (중략)

梧桐이 葉落하고 金風이 蕭瑟하니
 夏鶯은 齊飛하고 秋天은 一色일 제 (秋)
 (중략)

淸秋가 다 지나고 嚴冬이 되단말가
 江村에 눈 날리고 北風이 豪怒하여 (冬)
 (중략)

千古節 푸른 대는 봄빛이 혼자로다
 곱은 대 베어 내어 가지쳐 다듬오니 (春)
 (중략)

한 벌 衣服 입은 後에 春夏秋冬 다盡하니
 아마도 이런 옷은 내 옷밖에 또 없으리
 (하략) <만언사>

위는 유배지에서 보낸 1년 동안의 생활과 현지의 풍속에 대한 서술이다. 무덤고 지나긴 여름에 유배지에 도착하여 누더기 옷을 걸치고 동냥을 가자 섬 주민들은 ‘귀양다리’라고 비웃으며 박대하는가 하면 집주인 역시 점잖은 체면이 아니라면서 조소한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섬

주민들의 괴이한 풍속을 목격하고 이는 “王化가 不及하니 犬戎의 行事로다/ 人心이 아니어든 人事를 責望하라/ 내귀향 아니러면 이런 모양 보았으라…”라고 하여 그렇게 야박한 인심과 비윤리적인 풍속은 임금의 교화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광경을 보게 되었다며 자책하고 있다.

가을이 되자 임금 생각이 더욱 새로워져 “나래 돋힌 鶴이 되어…/ 萬里長天 구름되어…/ 梧桐秋夜 달이 되어…/ 粉壁紗窓 細雨 되어…”와 같이 ‘학’ ‘구름’ ‘바람’ ‘달’ ‘細雨’ 등으로 변신을 해서라도 임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또, 개 짖는 소리나 바다에 배가 들어오면 혹시 해배의 소식이 아닐까 하고 궁금한다.

겨울에는 “섬거적 뜰어 퍼니 仙緞 노히 되었거늘/ 개가죽 추켜 덮고 緋緞이불 삼았세라/ …/ 우흐로 寒氣들고 아래로 冷氣 올라/ 일흠은 溫窸이나 한데만도 못하고야/ 肉身이 氷上되어 寒戰이 절로 날 제”라고 한 것과 같이 형편없는 衣服과 住居 문제로 혹독한 고생을 했다는 것이다.

해가 바뀌어 봄이 오자 “五歲에 떠난 子息 六歲兒과 되었고나/ 내 아녀 임이라도 내 설음은 설다 하리/ …/ 흐르나니 눈물ियो 지어나니 한숨이라/ 내 눈물인들 限이 있고 한숨인들 끝이 있지”라고 하여 유배 생활을 한지 만 1년이 되면서 서러움과 근심이 더해진다고 했다.

이와 같이 본사는 여름에 시작하여 가을→겨울→봄에 이르기까지 비참하고 초라한 생활상의 서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유배 생활 1년의 이야기는 과거 30여 년의 노래보다 서술 분량으로 7배 가량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영욕의 부침보다 현실의 고난에 더 많은 비중을 두려는 작가 의식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¹⁶⁾

하나님께 비나이다 설운 願情 비나이다
冊曆도 해 목으면 고쳐 쓰지 아니하고
노호염도 밤이 자면 풀어져서 버리나니
世事도 묵어지고 人事도 묵었으니
天事萬事 蕩滌하고 그만 저만 敍用하사
끊어진 옛 因緣을 고쳐잇게 하옵소서 <만언사>

여기는 작품의 결사로서 이제 그만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다시 옛날의 인연을 잇게 해달라고 임금께 기원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여느 유배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작품을 지은 목적이 뚜렷이 부각되는 단락으로 유배 생활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작가의 의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이상에서 최장편의 유배가사로서 작가가 실제로 체험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시간의 순서에 의해 사실적 수법으로 서술하고 있는 <만언사>를 살펴보았다. 자신이 살아 온 개인의 일생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는 가운데 지나온 생활을 회고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생관을 곳곳에 드러내고 있다. 현재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상적인 소망과 현실적인 과제가 서로 교체되어 존재하는데, 이상적인 소망은 해배의 소식이 빨리 와서 유배지에서 석방되는 것이고, 현실적인 과제는 어려운 유배 생활, 즉 의식주의 해결이 원만하지 못한 이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농사일을 배우고 나아가 동냥까지 하는 것을 그려내고 있다.

김진형의 <북천가>는 유배의 동기, 유배 노정 및 유배지의 생활은 물론 특히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오는 과정과 집으로 돌아온 이후의 모습까지를 보여주고 있음이 다른 작품과는 차별적이다.

16) 류해춘, 『장편서사가사연구』(서울:국학자료원, 1995), 100쪽.

더위는 紅爐又고 장마난 極惡호디
羅將이 뒤에서고 靑奴를 앞서우고
(중략)

金化金城 지는後는 淮陽邑 막죽이라
江原道 北關길이 뜻기보기 긋흐구나
(중략)

高原邑 드러가니 本守丞 오공신
世誼가 自別기로 날 보고 반겨흐니 <북천가>

장마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서울을 떠나 유배지로 향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만을 보면 마치 기행가사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든다. 양주, 포천, 철원, 회양읍을 지나 험준한 철령고개를 넘어 회막에서 잠을 잔 후 안변읍에 들어가서는 본관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다시 원산을 지나 영흥읍과 고원읍에서도 후한 대접을 받는다. 이처럼 경유지마다의 사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古站驛馬 좁은타고 配所로 드러가니
人民은 繁盛호고 城郭은 雄壯호다
(중략)

이곳이 어디인고 主人집 차즈가니
노픈 大門 너른 사랑 三千石군 집이로다 <북천가>

명천에 이르러 수령에게 도착 사실을 알리자 지금까지 지나쳐 왔던 고을의 수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삼천석군의 부자집을 배소로 지정받는 등 역시 극진한 영접을 받았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 대목이다. 작가는 여기에서 60여 명의 지역 인사들과 더불어 밤낮으로 강학과 글짓기를 하는 것으로 유배생활을 시작하여 유배자의 본분을 잃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추석날에는 본관의 주선으로 군산월이라는 기생 등과 함께 칠보산을 유람하였으며, 유람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 중앙절에는 소무굴을 찾았다. 이는 유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관내의 명승지를 周遊한 내용을 담은 <관동별곡>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여유 넘치고 풍류스러운 생활이 아닐 수 없다.

炭幕에 드러짜가 京房子 달려드니
무산 寄別 왔다던고 放還寄別 느렸도다
(중략)

行裝을 지축홀 제 君山月이 待令호다
嬋娟호 舉動으로 우스면서 致賀호니
나으리 解配호니 작히 작히 感祝호라 <북천가>

중앙절에 소무굴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해배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며 행장을 재촉하는 모습이다. 군산월과 동행하면서도 이르는 곳마다 후한 대접을 받는다. 그러다가 원산에 이르러서는 구구한 변명으로 군산월을 돌려 보냈으나, 다시 안변 수령으로부터 봉선이라는 기생을 소개받아 철령까지 동행하였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채환재적가>는 蔡氏 姓을 가진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재차 유배되어 지었다는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癸亥 臘月 上京時의 風馳電撤 빨리가니
밤나스로 올라갈 제 完營의 다리드니
皇天이 不弔호스 天崩之痛 맛나세라
罔極奈何 悼痛奈何 路中望哭 호은後의
華城府을 언듯지나 果川縣의 다다르니
大王大妃 垂簾호스 事必歸正 되엿세라
죽어도 남을罪 放逐之典 나리시니

구뵤구뵤 天恩이요 갈스룩 惶悚無地

(중략)

甲子 正月 禁府胥吏 命令을 來傳하네

필스이스 ㅎ오시고 環圍安置 하이시니

樂禍喜事 나의 罪名 至當홀스 聲教로다 <채환재적가>

癸亥年¹⁷⁾ 선달 첫 번째 유배지에서 돌아오던 중 완주 감영에 이르렀을 때 哲宗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노중에서 통곡한 뒤 여주의 생가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죽을 대신 유배에 그쳐준 철종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후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두 달 만인 갑자년(1864) 정월 의금부의 관리가 찾아와 신지도 유배 명령을 전해준다.

日遲已 열오하네 告身이 冷落일세
言是拳捧 左右비셀 양비 杖木 壯觀일세
(중략)

ㅎ나가면 돌식오니 이노르슬 어이ㅎ리
煙戶雜役 뿐이라도 犯役不及 되것난디
海衣靑苔 기검블을 손과발노 서둔터도
돈 한입을 장만츠면 北風雪寒 ㅅㅅ녹는다
(중략)

ㅎ로 두 ㅅㅅ 곱슬무니 고편적이 만컨마는
허리씩 ㅅㅅ실는가 ㅅㅅㅅ로 돌나미고
忍字像의 主飢하네 長吁短嘆 절로난다 <채환재적가>

신지도에 도착해서 끼니도 거른 채 거쳐부터 마련하고자 이집 저집 물어보았지만 “한 집은 츠저가니 상방이라 핑계호고/ 또 한집 무러보니 안방이라 ㅅㅅ돌이네”와 같이 따돌림만 받고 할 수 없이 헛간을 빌려 하

루 밤을 보낸다. 이는 작고 가난한 섬에 “ㅎ나가면 돌식오니 이 노르슬 어이ㅎ리”라는 구절을 통해 당시 이 섬에는 적지 않은 유배객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며, 작고 가난한 섬에 이렇게 밀려오는 유배객을 감당할 수 없는 실상을 알려준 것이기도 하다. 다음날 관리가 찾아와 누추하기 그지없는 집을 거쳐로 정하여 주자 그곳에서 배고픔을 참아 가며 유배 생활을 시작하자니 저절로 긴 탄식이 난다고 하였다.

房間 빌너 쥬엇다고 傍若無人 悖逆하네
火爐집어 불노라고 막드들고 견우면서
口不可道 無數話辱 ㄱ단지난 정홀네라
如千書冊 이부즈리 茶罐尿缸 실 발 等物
(중략)

슬푸다 너 귀양은 남의 不當 ㄱ의 不當
이리돌고 저리도라 돌고도라 輪食일다
(중략)

ㅎ 번 ㅎ나 두 번 ㅎ나 우세되기 맛찬가지
各種臀腫 骨濕症의 各寶救急 傳人하네
此病間의 糧食變通 作聽人心 ㅅㅅ라노라 <채환재적가>

방 한 칸을 빌려주었던 주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굶주림에 지친 유배자는 할 수 없이 마을의 노인들이 가르쳐준 곳으로 동냥을 나선다. 음지마을에서 시작하여 동고지가→상리촌→신기리→대평리→신니 마을→양지 마을 등 섬 안의 온 마을을 전전하며 걸식하는 모습이 서술되어 있다.

島中스름 드러보소 大綱적어 冊이되네
片言雙辭 做作업서 十日所視 모도아네
날기듯친 鶴이되어 上林苑의 나라가서

17) 癸亥年 곧 1863年은 哲宗이 승하하고 興宣大院君의 둘째 아들이 12세에 高宗으로 卽位하는 해로서, 趙大妃와 大院君의 섭정이 시작되는 때였다.

슬피 우리 願情호여 聲聞于天 호게드면
 四聰四明 우리 聖上 覆盆之照 비취련만
 急更호리 업섯시니 自歎自歌 뿐이로다
 하날님께 미인목숨 至誠으로 贖罪호세
 獲罪于天 無逃는 모르는게 아니어만
 압압히 말못호고 識字憂患 陳情호니
 庚午 至月 初十日 敦村¹⁸⁾ 〈채환재적가〉

위는 작품의 결사로서 지성으로 속죄하니 이제 그만 용서해달라는 작가의 간절한 기원사이다. 작가는 궁극적으로 임금에게 이 뜻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자탄한다는 것이며, 이는 또 자신의 유배 생활과 심경을 문자로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유배가사 10편을 대상으로 하여 유배라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되고 또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 보았다.

먼저 〈만분가〉를 비롯해 〈사미인곡〉·〈속미인곡〉·〈자도사〉·〈별사미인곡〉에 대해 작가의 세계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들 작품에서는 임과 이별한 다음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함에 있어 한결같이 서사에 천상계

라는 가상의 공간과 적강한 신선을 설정하였고, 본사에서는 임과 이별한 세속의 여인을 화자로 등장시킴으로써 유배 상황을 대단히 관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작품은 유배라는 극한 상황을 임과 이별한 여인의 입장에서 현실적 원망이나 고통은 가능한 한 드러내지 않은 채 오직 과거에 대한 회상과 임에 대한 일방적 그리움만을 표출하고 있는바 이를 두고 관념적 세계인식에서 비롯된 허구적 표현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지어진 〈만분가〉에서 시작된 이러한 표현 방식은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 이르러서는 더욱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형상화 방식은 〈자도사〉를 거쳐 〈별사미인곡〉에 이르기까지 시간상으로 약 200년간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북관곡〉을 비롯해 〈속사미인곡〉·〈만언사〉·〈북천가〉·〈채환재적가〉 등 조선 중기 이후에 지어진 작품들은 현실 정치에서 패배하고 유배된 상황을 표현함에 있어 대개 작가 자신으로 보이는 “나”를 작중 화자로 설정하여 때로는 원망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까지도 그대로 드러내는 등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들 작품은 작가 곧 작중 화자들이 체험한 이야기를 공간의 이동 및 시간적 순서에 따라 대단히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인데, 〈북관곡〉에서 시작된 이러한 장편 서사적인 표현 양상은 최후의 유배가사로 알려진 〈채환재적가〉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왔다.

결국 유배가사의 경우도 임·병 양란 이후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문학 일반에서도 장편화·서사화라는 변모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 여기의 庚午年은 1870년(高宗 7)에 해당하는데, 이 작품의 서두에서 계해년(1863) 선달 첫 번째 유배에서 풀려나 두 달 후인 갑자년(1864) 정월에 다시 유배를 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의 경오년을 창작 연대로 본다면 채구연은 무려 7년이나 추자도에서 유배생활을 했다는 말이 된다.

■ 참고문헌

『가사문학집성』, 대제각, 1986.
『기행가사자료선집』, 국학자료원, 1996.
『역대가사문학전집』, 아세아문화사, 1998.
『17세기 가사선집』, 교학연구사, 1987.
『18세기 가사선집』, 민속원, 1991.

김성배 외, 『주해 가사문학전집』, 집문당, 1961.
류해춘, 『장편서사가사연구』, 국학자료원, 1995.
서원섭, 『가사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78.
이상보, 『한국가사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74.
정재호, 『한국가사문학론』, 집문당, 1982.

김신중, 「송강가사의 시공상 대비적 양상」, 『고시가연구』2·3합집, 한국고시가학회, 1995.
김주곤, 「유배가사에 나타난 충절의식 양상」, 『영남어문학』 16, 영남어문학회, 1989.
김진영, 「사미인곡의 작품세계」, 『한국고전시가 작품론』 2, 집문당, 1982.
성현경, 「적강소설연구」,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출판부, 1989.
이가원, 「만분가연구」, 『동방학지』 6집, 1963.
이병기, 「송강가사의 연구」, 『진단학보』 제6권, 진단학회, 1936.
정옥희, 「가사문학의 미인곡연구」, 『한국어문학연구』 10집, 이화여대, 1970.
정익섭, 「미인가사고」, 『한국시가문학론고』, 전남대출판부, 1989.

〈투고일 : 2007. 6. 30. 심사일 : 2007. 7. 16. 심사완료일 : 2007. 8. 10.〉

〈Abstract〉

Exile Gasa on the apper of experience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aspect

Lee, Hyeon-joo

Up to now, observations were made to review the recognition of experience and the aspect of formation appeared on exile words.

First, literature works such as 〈samiinkok사미인곡〉·〈sokmiinkok속미인곡〉·〈jadosa자도사〉·〈bulsamiinkok별사미인곡〉 including 〈manbunga〉 established imaginary spaces and descent hermit on the epics to describe longing feelings toward the separated lovers. In the main track the woman who separated from her lover became a story teller and so, it was unevitable to become that exile situations and experiences could not be a realistic, but a fictitious form.

From the first piece of work 〈manbunga〉 done, this type of expression was used, and were shown to be much developed as in the works of Chung chul 〈samiinkok〉·〈sokmiinkok〉. This formational usage through 〈jadosa〉 to 〈bulsamiinkok〉 continued for 200 years in the history, and resulted in one typical pedigree as a beauty-melody type of exile word.

Next, observations were made on the works after the middle of the Chosŏn dynasty such as 〈bukkwankok북관곡〉·〈soksamiinkok속사미인곡〉·〈manumsa만언사〉·〈bukchunga북천가〉 and 〈chehqanjaijukga채환재적가〉 and reviewed about the experience recognition and an aspect of formation on those works.

These works were based on the actual experiences of writers and described the lost and exiled situations in a real political world according to movement in places and by time sequences in reality.

This expression style started from 〈bukkwankok〉 and lasted through 〈chehqanjaijukga〉 well known as last exile word. This may due to that exile words accommodated adequately social and literary changes after Imjin and Byungja confusion.

Key word : Exile Gasa, hermit, realistic, experience